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하세요”

농식품부, 자유무역협정 지급대상 귀리·목이버섯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이다.

폐업지원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재배,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부터 2019년도 조사,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

이번 6월 5일 지원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수입피해 감시(모니터링) 품목 42개와 농업인 등이 신청한 73개 품목, 총 115개 품목에 대해 조사, 분석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상기 조사, 분석 결과에 대해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 간 농업인 등의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지원센터는 “이의신청 품목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2019년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지급 품목은 귀리, 목이버섯, 총 2개 품목이며, 이 중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품목은 없다”고 지원위원회에서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

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및 직불금,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품목에 대해 신청을 누락하는 농업인이 없도록 지자체에서 관내의 농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기간 내에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매콤한 K-FOOD, 육식 선호 몽골입맛도 사로잡아

aT, 몽골서 한국음식 홍보 펼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주째 맞이하는 ‘한국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맞춰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K-FOOD 시식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 aT는 농식품 청년해외개척단인 아프로(AFLO) 단원들과 함께 K-FOOD 체험부스를 만들어 한국의 제육볶음과 카레덮밥, 샐러드, 떡볶이, 김치전 등 몽골 현지인들 입맛에 맞춘 다양한 한국음식 시식을 진행했다.

약 1300명의 몽골 현지인은 유류민후에들답게 제육볶음 등 고기요리에 관심이 많았으며, 열량이 높은 마요

네즈를 활용한 파스타 샐러드도 인기를 끌었다.

행사장을 방문한 후레대학 재학생들은 “기존에 몽골에서 맛보던 한국음식 외에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음식에 사용된 뷔음유와 샐러드 소스를 구매해 집에서 직접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기간 중 주몽골 한국대사관과 한인회가 공동주최한 K-POP World Festival 선발전도 함께 진행되어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한국음식과 한복체험, 사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한국의 맛과 멋을 한 곳에서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신현곤 aT식품수출이사는 “몽골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식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K-FOOD 시식행사를 했다.

이나 외국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K-FOOD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한국 농식품을 적극

소개하는 한편,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같이씨요 제로페이, 함께가요 뉴욕’

중기부, 뉴욕 왕복항공권·숙박권 제공 이벤트 진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는 중기부에서 모바일 지불결제(이하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 ‘같이씨요 제로페이, 함께가요 뉴욕’ 이벤트를 진행한다

제로페이는 전국 가맹점 수가 약 24만개를 넘어섰고(2019.5.31), 6월 6일

기준, 결제실적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사용자 반응도 조금씩 늘고 있으나, 아직 QR결제 방식의 제로페이에 익숙지 않은 신규 사용자의 유입과 사용률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벤트에 참여는 기간중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하고, 이벤트페

이지(www.zeropayevent.co.kr)에 결제를 인증하여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 경품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3명에게 KCON 2019 NY(7월 4일~7월 7일까지 미국 뉴욕)를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과 왕복항공권 및 숙박권을 제공하며, 1인 동반이 가능하다.

그 밖에 3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10만원, 50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제로페이의 결제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번 이벤트는 지난 4월 KCON

2019 JAPAN'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공식 홈페이지(www.zeropay.or.kr)의 ‘가맹점 찾기’ 혹은 네이버 지도에서 ‘제로페이’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데, 5월 2일부터 결제서비스를 시작한 5대 편의점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결제사업자 측에서도 이번 이벤트 홍보와 함께 자체적으로 제로페이 사용에 따른 할인, 포인트, 사은품, 기프티콘 증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조선·자동차 기자재 부품기업 자금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10일 현대중공업 및 한국GM군산공장의 가동중단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도내 조선 및 자동차 기

자재, 부품업체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전북도에 소재한 업력 3년 이상의 조선 및 자동차 기자재, 부

품제조업체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전라북도에서 2.5%를 지원받아 실질금리는 1% 미만인 될 전망이다.

또한, 대출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하며 재단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보증 8억원 한

도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장근 본부장은 “도내 대기업의 잇따른 가동중단으로 관련 업체와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있어 금차 지원이 가문의 단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올 여름 첫 보양식은 ‘연잎백숙’

하림, 유현수 셰프와 협업해 특별한 백숙 요리 선보여

종합식품기업 (주)하림이 국내 최초로 한식부문 미쉐린(미슐랭) 스타를 받은 유현수 셰프와 함께 특별한 여름 보양 메뉴를 선보인다.

유현수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두레우에서 10일부터 하림 그리너스 통닭으로 만든 ‘두레우 연잎백숙 차림’ 신메뉴를 출시하는 것.

이번 신메뉴는 때 이른 더위에 기력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신선한 닭을 향이 은은한 연잎과 함께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하림의 동물복지 브랜드 스텝을 도입한 하림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동물복지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한 닭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유현수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닭백숙을 더 특별하게 선보이게 되었다”며 “신선한 닭고기 맛을 최대한 살린 맛있고 영양 가득한 ‘두레우 연잎백숙’으로 기력도 보충하고 기분전환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줄 아열대 채소 중 하나인 오크라 장아찌와 갖가지 준비된다.

‘두레우 연잎백숙 차림’은 1인분 기준(백숙, 녹두 누룽지, 말반찬 포함) 3만5천원으로 10일부터 유현수 셰프가 운영하는 두레우 평창점에서 상시 판매된다.

하림의 동물복지 브랜드 그리너스는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생산지 시스템을 도입한 하림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동물복지 기준보다 더 까다롭게 관리한 닭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유현수 셰프와의 협업을 통해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닭백숙을 더 특별하게 선보이게 되었다”며 “신선한 닭고기 맛을 최대한 살린 맛있고 영양 가득한 ‘두레우 연잎백숙’으로 기력도 보충하고 기분전환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 기자

이스타항공, 회원가입 고객 대상 사전 이벤트 시작

이스타항공이 오는 17일 동계스케줄 오픈을 앞두고 사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되는 이벤트로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에 가입한 신규회원과 신규회원을 추천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국제선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왕복 항공권을 경품으로 한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은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회원가입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국제선 5000원 특별 할인 코드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회원 고객들은 신규 고객 회원 가입 시, 추천인 ID를 입력할 경우 국제선 3000원 특별 할인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할인코드와 바우처 코드는 동계스케줄 프로모션 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사전 이벤트 기간 동안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 이스타항공 노선 중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와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국

제선 왕복항공권, 국내선 왕복항공권 등을 경품을 제공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동계스케줄 오픈 특기는 10월 27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출발 할 수 있는 항공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최대기간, 최다노선, 최대할인 폭의 프로모션으로 일년에 단 두 번만 열린다”며, “가장 많은 고객들이 불리는 이벤트인 만큼 많은 고객들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특별히 사전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레드페스타(Red Festa) 이벤트는 동계시즌과 하계시즌 스케줄이 오픈하는 기간에만 진행되는 프로모션으로 할인 폭이 가장 크다.

본 이벤트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편도총액유닛 기준 최저가 ▲동남아·동북아 노선 6만3900원 ▲일본노선 4만2000원 ▲국내선 1만2500원부터 예약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